

해외지역연구의 방법과 과제*

이 전**

Methods and Issues of the Area Studies in Geography*

Jeon Lee**

요약 : 지리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알려진 세계 혹은 거주가능지역에 대해 기술하는 학문으로 출발하였다. 현대지리학에서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의 핵심 분야에 속한다. 지리학은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들에 비교해 볼 때, 해외지역연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리학계에서는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편인데, 그 요인은 한국 지리학계가 처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과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내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 환경 요인으로는 해외지역연구에 수반되는 현지조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요인과 중동지리 교과서나 지리부도 집필에 지리학계의 연구 인력을 지나치게 소모하는 요인을 들 수 있고, 내적 요인으로는 한국 지리학자들의 국수주의적 관점, 신비주의적 관점, 권위주의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근래 한국 지리학자들은 해외지역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해외지역연구는 아직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요어 : 해외지역연구, 지역연구, 지역학, 세계지리, 지역

Abstract : Geography as a field of learning had its beginnings among the scholars of ancient Greece. The emergence of modern Geography was much due to the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about overseas areas. Today, world regional geography, which may be called area studies in other social sciences, is regarded as an introductory geography course in many American universities. World regional geography, however, has been much neglected by Korean geographers. Many factors have made Korean geographers not concentrate their efforts to area studies. The exterior factors include the great expenses for the area studies' fieldworks, and the many geographers' involvement in the writing of geography textbooks and atlases for school students. The interior factors include all the ethno-centric, mysterious, and authoritarian perspectives a large number of Korean geographers strongly stick to.

Key words : Area studies, Geography, World regional geography, Region.

1. 들어가는 말

‘해외지역연구’는 문자 그대로 해외의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국한하여 정의한다면, 해외지역연구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아닌 지역에 대한 연구이다. 해외지역연구는 국내의 정치학, 국제경제학, 인류학, 역사학, 영문학 등 인문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데, 지리학자들에게는 해외지역연구보다는 세계지리(세계지역지리; world regional geography)라는 용어가 훨씬 익숙한 용어이다. 세계지리 범위에 한국지리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세계지리가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흔히 국내의 지리학계에

서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를 대조하여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세계지리와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는 동일한 개념이 된다. 즉,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는 곧 세계지리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국내의 인문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외지역연구라는 용어는 영어의 ‘area studies’를 번역한 용어이다(이전, 1997; 이전 1999).

영어의 ‘area studies’ 개념을 흔히 지역연구, 지역학, 국제지역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해외지역연구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의 ‘area studies’ 개념을 ‘지역연구’, ‘지역학’ 등으로 부른다면,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첫째, 그것을 지리학에서 말하는 지역(region)에 대한 연구와 혼동할

* 이 논문은 2004년 1월 30일~31일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전공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gglee@gsnu.ac.kr)

위험이 있다. 지리학에서의 지역에 대한 연구와 영어의 'area studies'에서의 지역에 대한 연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지리학에서의 지역은 국내외의 지역을 포섭하는 용어이지만, 영어의 'area studies'에서의 지역은 주로 해외지역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둘째, '지역연구' 혹은 '지역학'을 '지역사회(community)에 대한 연구'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 1995년 4월 경상대학교 기획위원회가 '지역학(area studies)'을 경상대학교 인문사회과학의 중점 육성 분야로 설정하기로 결정하자 곧 지방언론에서는 "경상대학교는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남서부 지역사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 후에 경상대학교는 'area studies'를 의미할 때 반드시 '해외지역연구'로 칭하게 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어의 'area studies'를 의미할 때는 반드시 해외지역연구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진, 1997).

지리학은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진 세계 혹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등에 대하여 기술하는 학문으로 출발하였다. 현대지리학에서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한 연구, 즉 세계지리는 지리학의 핵심 분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한국 지리학계가 해외지역연구에 기여한 바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왜 한국 지리학계가 해외지역연구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못하였는가? 앞으로 한국 지리학자들이 해외지역연구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지리학의 해외지역연구 전통, 지리학의 지역연구 특성, 한국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 현황, 한국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 부진의 요인 등을 고찰할 것이다.

2. 지리학사 차원에서 살펴본 해외지역연구의 전통

지리학은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관심을 갖는 학문으로 출발하였다. 그리스 지리학은 알려진 세계 혹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등에 대하여 기술하는 학문이었다.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의 지리학 업적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지리학(geography)』이라는 17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중에 두 권은 개론서였고, 여덟 권은 유럽에 관한 지리학 저서였

으며, 여섯 권은 아시아에 관한 지리학 저서였고, 나머지 한 권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리학 저서였다. 스트라보는 『지리학(geography)』 저서를 통하여 당시에 알려진 세계(the known world), 거주가능 지역(ekumene; zones of habitability)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던 것이다(James and Martin, 1981).

지리상의 발견 시대에 유럽인들이 세계 각 지역을 탐험하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에서 고전 지리학이 체계화되었다. 유럽의 고전지리학은 항해와 탐험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이었다. 유럽의 고전지리학을 집대성한 지리학자는 독일 태생의 지리학자 바레니우스(Bernhard Varenius; 1622년~1650년)였다(James and Martin, 1981).

바레니우스는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던 상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바레니우스는 1649년에 『일본에 관한 기록(Descriptio regni Iaponiae et Siam)』을 출판하였고, 1650년에 『일반지리학(Geographia generalis; General Geography)』¹⁾을 출판하였다. 바레니우스는 지리학을 크게 일반지리학(general geography)과 특수지리학(special geography)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일반지리학은 어떤 장소(places)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 또는 원리를 기술하는 지리학이고, 특수지리학은 특정 장소의 특성을 기술하는 지리학이다.²⁾ 그러나 바레니우스는 일반지리학과 특수지리학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에서 상호의존적인 부분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바레니우스의 사고는 현대지리학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19세기 중반에 활동하던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년~1859년)와 리터(Carl Ritter; 1779년~1859년)는 근대지리학의 초석을 쌓은 지리학자들이다. 이 두 지리학자는 인간 생태학적 관점을 갖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지표 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상호 의존한다고 지적하면서 지표상의 여러 현상을 총체적 관점(total impression)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훔볼트는 유럽(Austria, Italy, France, Spain, Germany 등), 아메리카(Venezuela, Colombia,

Ecuador, Peru, Mexico, Cuba, USA 등), 그리고 러시아(St.Petersberg, Siberia, Caspian Sea 등)를 답사하였고, 답사와 여행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연구하였다. 반면에 리터는 유럽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기는 했으나, 홈볼트에 비하면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리터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리터는 개별 현상에 대한 계통적 연구보다는 지역(regions)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 힘을 쏟았다 (James and Martin, 1981).

19세기 전반에 홈볼트와 리터에 의하여 출발한 근대지리학은 19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지리학은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Richthofen), 라첼(Friedrich Ratzel), 헤트너(Alfred Hettner), 슬뤼터(Otto Schlütter),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비달(Vidal de la Blache), 미국 지리학자 소어(Carl Sauer), 하트슨(Richard Hartshorne) 등에 의하여 근대 학문으로 확고히 정립되었다. 이러한 근대지리학자들은 모두 지역연구를 지리학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김재완, 2000).

근대지리학자 중에서 지역연구를 특히 강조한 지리학자는 미국 지리학자 하트슨이었다. 그는 1939년 『지리학 본질(the Nature of Geography)』이라는 5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출판하였는데, 이 저서에서 그는 “지리학은 지표의 다양한 특성을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하트슨은 홈볼트와 헤트너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리학의 목적이 지표에 펼쳐져 있는 서로 관련된 현상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이고, 지리학의 학문적 장점은 종합(synthesis)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Hartshorne, 1939).

20세기 후반에 근대지리학은 인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패러다임을 수용한 학문으로 발달하였다. 20세기 후반부터의 지리학을 현대지리학(contemporary geograph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50년대 이후에 현대지리학은 지역계획, 도시구조, 산업입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또한 계량기법이나 논리실증주의, 행태과학(behavior science) 방법론 등의 새로운 방법론도 도입하였다(Johnston, 2001).

이러한 현대지리학자들은 종종 지역(region) 대신에 공간(spa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다양한 방법론이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지리학에서도 해외지역연구는 지리학의 핵심 분야로 남아 있다. 비록 모든 지리학자가 해외지역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외지역연구는 지리학의 전통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지리학에서도 지리학의 핵심 분야인 것이다. 오늘날 미국 대학에서는 드블리에(DeBlij, 2001), 잉글리시와 밀러(English and Miller, 1989), 윌러와 코스트베이드(Wheeler and Kostbade, 1990), 스탠즈필드와 지몰작(Stansfield and Zimolzak, 1990), 콜(Cole, 1996) 등의 지리학자들이 각각 저술한 『세계지리(World Regional Geography)』 교재가 대학의 지리학 기초 과목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즉, 미국의 다수 대학에서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리학의 기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지리 과목이 지리학의 입문 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해외지역연구는 지리학의 주된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3. 해외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리학의 특성

지리학자들이 일찍부터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지리학의 학문적 특성 중에서는 해외지역연구에 유용한 특성이 많다(이전, 1997; 이전, 1999). 여기서는 지리학의 특성 중에서 해외지역연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특성만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지역 설정과 지역성 究明을 중시하는 특성

지리학자는 지역의 의미, 지역의 성격, 지역 구분 등 지역 자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바로 지역 자체가 지리학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리학자는 지역(region)을 ‘하나 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비슷하거나 같게 분포함으로써 성격을 같이 하는 공간적 범위’ 혹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성질이 같거나 서로 밀접한 공간 관계를 갖는 범위’라고 규정한다. 지리학자들은 지역을 등질지역과 기능지역으로 구분한다. 등질지역은 어떤 사상(事

象)이나 성질이 유사한 지역 범위를 나타내고, 기능지역은 어떤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등질지역은 현상이 분포하는 범위이고, 기능지역은 어떤 기능의 중심으로부터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이다.

지리학자는 지역(region)을 설정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 구분을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간주한다. 지역과 지역 사이의 경계는 뚜렷한 경우도 있으나, 양 지역의 경계가 접이대대를 이루고 있어 그것을 선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설정하여 구분하는 작업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다. 지리학자 이외의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행정적 경계 혹은 정치적 경계를 지역 구분의 지표로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지역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적인 경계 혹은 정치적인 경계로 지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지역 설정의 한 방법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야 하는 방법은 아니다.

해외지역연구에서 지역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다. 국내의 언론계 혹은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흔히 서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를 혼동하고 있다. 남부아시아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부탄·몰디브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서남아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이란·시리아·요르단·이스라엘·쿠웨이트·예멘·카타르·바레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지칭한다. 그런데 국내의 언론계 혹은 인문사회과학계에서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을 서남아로 잘못 칭하는 경우가 많다. 서남아시아 지역과 남부아시아 지역을 혼동하는 경우에 해외지역연구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2)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을 통한 총체적 접근

지리학은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으로 구분되는데, 계통지리학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원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리학 분야, 즉 지역의 사상(事象)에 내재한 법칙을 추구하는 지리학 분야이고 지역지리학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성을 논하는 지리학 분야, 즉 지역의 개성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구명하는 지리

학의 분야이다. 그런데 지리학자들은 지역의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오랫동안 추구해왔다(이상술, 2000).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을 통한 총체적 접근이 지리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이다. 사회과학에 속하는 대부분의 분과 학문들은 지역의 특정 주제에만 관심을 갖지만, 지리학은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연구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과학과 다르다. 지리학자들의 모든 연구가 모든 지역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리학자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 여러 지역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있는 것이다.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을 통한 총체적 접근을 중시하는 지리학 특성은 해외지역연구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할 특성이다.

지리학자들은 특정 지역의 지역성을 구명하는데 자연환경을 중시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과학자들과 다른 장점이 있다. 자연환경은 지형, 기후, 물, 토양, 생물 등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인간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왔다. 자연환경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의 입장은 지리학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찍이 지리학자들은 환경결정론, 가능론, 생태적인 관점 등을 정립하였다. 오늘날 국내의 대부분의 지리학과 혹은 지리교육과에는 자연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식생지리학 등의 자연지리학 분야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연지리학 분야의 강좌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리학자들은 지역성을 구명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중시한다. 지리학은 지역을 연구주제로 삼고, 인류학은 문화를 연구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분야는 지리학인 동시에 인류학에 속한다. 그래서 지리학과 인류학은 일찍부터 밀접한 관련 하에서 출발하였고, 현재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세기말에 활동하던 독일의 라첼(Ratzel)은 지리학자였지만, 인류학에도 공헌하였다. 특히 미국의 문화지리학은 문화인류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달하였다. 미국 지리학 발달에 크게 기여한 소어(Carl O. Sauer)는 버클리(Berkeley) 대학교의 동료 교수인 인류학자 알프레드 크뢰버(Alfred Kroeber), 그리고 인류학

자 로버트 로우이(Robert Lowie)와 매우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버클리 학파의 전통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잘 계승되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는 지리학과 인류학이 하나의 학과(Dept. of Geography and Anthropology)에 속하고 이 학과의 다수 교수는 문화지리학자인 동시에 문화인류학자이다.

4. 한국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 현황

한국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이를 통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대한지리학회와 『대한지리학회지』 논문과 한국지역지리학회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논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대한지리학회는 한국에서 최다수 회원을 갖고 있는 지리학회이고 가장 오랜 전통의 지리학회이기 때문에 『대한지리학회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한국지역지리학회는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설립 동기로 출범한 지리학회이기 때문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한지리학회지』 제25권 제1호(1990년 6월)부터 제38권 제5호(2003년 12월)까지 게재된 총 402편의 논문 중에서 45편의 논문이 해외지역연구에 관련된 것이다(표 1, 표 2, 표3). 이 45편의 해외지역연구

논문 중에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관한 논문이 각각 16편, 10편, 9편, 6편에 달하였고, 기타 지역에 관한 논문은 5편뿐이다.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해외지역연구 논문 중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유학한 한국 지리학자들이 선진국 대학의 대학원 재학 중에 연구한 결과를 귀국한 이후에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게재한 논문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 해외지역연구 관련 논문의 연구 지역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해외지역연구가 가장 활발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다. 1990년대 전반에는 5.6%이던 해외지역연구가 1990년대 후반에는 13.9%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 전반에 다시 11.2%로 약간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해외지역연구가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지원사업 분야로 선정되면서 지리학계에서도 몇 편의 해외지역연구가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해외지역연구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교육부 방침이 개별 학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정책에서 해외지역연구 관련 대학원과 정 지원정책으로 바뀌면서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되었다.

표 1.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해외지역연구 논문: 1990년대 전반

표 2.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해외지역연구 논문: 1990년대 후반

한국지역지리학회는 1995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권을 발행하면서 전국 규모의 학회로 출범한 학회이다. 2001년에는 『한국지역지리학회지』가 일년에 네 번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한국지역지리학회지』가 지리학 관련 학술지 중에서 두 번째로 즉, 『대한지리학회지』에 뒤이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회지로 등재됨으로써 한국지역지리학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리학회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지역지리학회가 출범한 1990년대 중반은 세계화가 문민정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되면서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였다. 그래서 세계화에 따른 해외지역연구 활성화라는 시대적 분위기가 한국지역지리학회의 설립 동기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211편 중에서 25편(11.8%)이 해외지역연구 관련 논문이다(표 4). 그러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의 해외지역연구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한지리학회지』의 해외지역연구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차이가 없다. 한국지역지리학회가 출범할 무렵이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교육부 지원사업의 '지역연구'는 바로 해외지역연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지역지리학회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부응하고자 논의된 바 있었으나, 해외지역연구 활성화라는 학회 설립 동기는 그에 대한 논의 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이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성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표 3.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해외지역연구 논문 : 2000년대 전반

5. 해외지역연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지리학계 환경적 요인

선진국 지리학에서 해외지역연구가 매우 중요한 지리학 분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지리학계에서 해외지역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요인에는 한국 지리학계가 처한 환경에서 비롯된 요인이 있고, 한국 지리학자들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으로부터 파생되는 요인이 있다(이전, 1997).

1) 해외지역연구에 수반되는 현지조사 비용 문제

해외지역연구에 수반되는 현지조사 비용이 해외지역연구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 한국 지리학자

들의 해외지역연구 부진은 해외지역연구에 수반되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에 많이 기인할 것이다. 지리학자들은 문헌을 통한 제2차적 자료보다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제1차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간주한다. 마치 역사학자들이 다른 사람이 써 놓은 논문이나 문헌에 의존한 연구보다는 사료를 직접 독해한 연구를 선호하듯이 지리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써 놓은 논문이나 문헌에 의존한 연구보다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한 자료에 의존한 연구를 선호한다.

특히 국내외의 대학원 과정에서 지리학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논문을 쓰는 경우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러

해외지역연구의 방법과 과제

한 현지조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리학 전공의 대학원생들은 가까운 국내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지역연구의 현지조사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해외지역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2) 중등학교 교과서와 지리부도 집필에 연구 인력 소모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 집필에 연구 인력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요인도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 활성화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행 중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과목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 지리교과서나 지리부도는 모든 중등학교 학생들이 필히 소지해야 하는 교재에 속한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지리교과서나 지리부도가 교육부 검인정 체제에 의하여 채택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수의 지리학자들이 주기적으로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의 집필 작업에 전념해 왔다. 상당수의 지리학자들이 주기적으로 중·고등학교 지리교과서나 지리부도의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지리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지리학의 해외지역연구의 축적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4.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해외지역연구 논문: 1995년부터 현재까지

6. 해외지역연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지리학계 내부적 요인

한국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 부진이 오로지 한국 지리학계가 처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한국 지리학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 관점이 해외지역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해외지역연구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한국 지리학자들의 관점을 '국수주의적 관점', '신비주의적 관점', 그리고 '권위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해서 비판해 볼 수 있다.

1) 국수주의적 관점

지리학의 연구 지역을 우리의 국토에 한정하는 '국수주의적 관점'을 들 수 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인하여 중등교육의 정규과정이나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국어·국사·국토지리·국민윤리 등의 과목들은 정책과목 혹은 필수과목 등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조류에 따라 한국의 지리학계에서는 국토지리(한국지리)가 강조되었다. 사실, 상당수의 지리학자들은 국토지리를 강조함으로써 지리학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세계지리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1987년 대한지리학회에서는 국토지리를 강조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상당수의 한국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국민이 복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학문'으로 인식하였다(박영한, 1987; 형기주, 1987; 황재기, 1987). 국토지리를 강조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지리를 강조한 만큼 세계지리 분야는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 이전부터 국토지리보다는 오히려 세계지리를 강조해야 하지 않았을까? 만약 일찍부터 지리학을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였다면, 지리학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한국지리보다는 세계지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지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 아니었을까? 일찍부터 세계지리가 강조되었다면, 1990년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른 해외지역연구 지원사업에서 지리학이 주변 학문 분야로 간주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1990년대 후반에 해외지역연구 관련 대학원과정이 전국적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리학계가 상당히 기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 지리학자들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관해 좀더 개방적 시야를 갖는 것이 어떨까?

2) 신비주의적 관점

현실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전제로 삼고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론을 추구하는 관점을 비꼬아서 이 글에서는 '신비주의적 관점'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신비주의' 지리학자들은 현실 세계를 매우 단순화하여 이론, 법칙, 모형, 모델, 규칙, 체계 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신비주의' 지리학자들은 흔히 '모든 인간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제인이라면', '지표 공간이 기하학적 공간이라면', 혹은 '인간이 지표에 균등하게 분포한다면' 등의 전제를 앞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전제들은 현실 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신비한 세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신비한 세계를 전제로 하여 도출한 이론, 법칙, 모형, 모델, 규칙, 체계 등도 종종 신비하게 보인다. '신비주의' 지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방법을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칭하지만, 종종 그들의 연구 방법은 신비스럽게 보인다.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한 생활양식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양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다. '신비주의'는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잡한 이론을 통한 어설픈 설명보다는 다양한 인간사회를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해외지역연구의 활성화에서는 '신비한 이론을 통한 설명(explanation)'보다는 '다양한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위한 노력이 선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권위주의적 관점

권위주의 지리학자들은 구조주의, 자본주의, 심층구조 등의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지리학자들인데, 이들은 마치 신학자들이 자신의 교리(敎理; dogma)를 섬기듯 그들의 학설을 숭배한다. 권위주의 지리학자들은 현실 사회의 변수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성급하게 구분한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역의 핵심적 구조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다른 지리학자들은 지역의 치장에 관련된 부분만 매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가 권위주의 지리학자들의 문제점이다.

지역의 핵심적 구조는 무엇이고, 치장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권위주의 지리학자들이 자기중심적 결론 혹은 소집단 중심적 결론에 너무나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학설은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요인이 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경직된 선입관은 다양한 지역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조화이론을 새로운 지역지리학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최병두, 2002)이나 세계체계론적 관점에서 지역연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방법론(이재하, 1997) 혹은 현대의 다양한 사회이론에 의해 지역연구에 접근해야 한다는 신지역지리학적인 방법론(손명철, 1994; 손명철 2002; 이회연·최재현, 1998)을 통째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국의 지리학계에서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 업적이 미천한 상태에서 특정 이론에 매몰된 방법론을 먼저 강조할 때 해외지역연구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양사 분야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면, 서양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양사에 관련된 사료를 수집하여 해석하는 다수의 논문이 우선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다수의 서양사 논문이 축적되면서 서양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다. 서양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축적되기도 전에 서양사 방법론에 대한 연구만 축적된다고 서양사 분야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 이론화 작업은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해외지역연구 논문들이 축적되는 과

정을 따라 혹은 그 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맺는말

지리학은 그리스 시대에 알려진 세계, 혹은 거주 가능지역에 대해 기술하는 학문에서 출발하였다. 세계의 각 지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즉 세계지리는 오늘날의 현대지리학에서도 핵심적인 연구 분야이다. 지리학자들은 지역(region)을 의미 있는 실체로 보고 지역 설정, 지역 구분, 지역성 구명 등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본다. 지리학은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지향한다. 지리학자들은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지역연구의 기초적 지식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리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지역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총체적 지역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지리학 지역연구의 중요한 특성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지리학자들의 해외지역 연구 논문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한국 지리학자들에 의한 해외지역연구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지리학자들은 주로 국내의 지역에만 관심을 가져 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해외지역연구 논문 수는 전체 논문 수의 10%를 남짓한 비율에 머물러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에는 해외지역연구 분야가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육성 분야로 지원을 받았고 1990년대 말에는 전국의 주요 대학에 해외지역연구와 관련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간은 한국의 해외지역연구 분야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중흥기를 맞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의 해외지역연구를 주도한 분야는 정치학, 국제경제학, 인류학, 역사학, 영문학 등의 다른 인문사회과학 분야였고, 지리학은 해외 지역연구에서 주변 학문 분야로 머물러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지리학계에서도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듯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

지는 않다.

해외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경우에 현지조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해외지역 연구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 집필에 연구 인력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요인도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 활성화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국수주의적 관점', '신비주의적 관점', '권위주의적 관점' 등은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한국 지리학자들의 관점을 비꼬아서 일컫는 말이다.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국토 공간이라는 '국수주의적 관점'은 해외지역연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한국 지리학자들은 국토 공간을 강조하는 것이 지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유리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또한 어설픈 이론으로 지역을 설명하려는 '신비주의'나 '권위주의'도 배격되어야 할 관점이다. 지역을 성급히 설명하려는 것은 지역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리학이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다수 지리학자가 특정한 지역을 전공하는 동시에 특정한 주제를 전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지리학자에게 "당신의 전공영역(specialty)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지역지리학의 한 분야와 계통지리학의 한 분야를 들면서 답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을 연구하고 문화지리학에 관심을 갖는다." 혹은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정치지리학을 연구한다." 등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지리학자들은 지역지리학 분야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거의 모든 지리학자들이 지역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지리학만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지리학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지리학계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지리학계의 해외지역연구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註

1) 그의 저서 『일반지리학』은 수차례에 걸쳐서 번역되고 수정되면서 100여 년 동안에 이 분야의 기본서로

서 권위를 갖고 있었다. 바레니우스는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케플러(Kepler), 갈릴레오(Galileo) 등의 태양중심설을 수용하였다. 위도에 따라 태양열의 양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이에 따른 지구의 풍계(바람의 체계)에 대한 설명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 2) General geography is geographical writings that describe the general and universe laws or principles that apply to all places; special geography is geographical writings that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places.

文 獻

- 김재완, 2000, 1920~1930년대 독일 지리학의 연구 동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1), 69-89.
- 박영한,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현황과 방법의 모색, 지리학, 35, 1-9.
- 손명철,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 손명철, 2002, 근대 사회이론의 접합을 통한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방법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50-160.
- 안영진, 2002, 우리 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 추세와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84-198.
- 이상섭·권태환 외 다수, 1998,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상울, 2000, 지역연구와 사회, 대한지리학회지, 35(2), 275-279.
-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의 적절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세계체계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15-134.
- 이전, 1997, 지리학과 해외지역연구,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전, 1999, 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해외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3(1), 65-80.
- 이전, 1999,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가, 한울.
- 이전, 2001,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한울 및 애틀랜타 한인회 한인이민사 편찬위원회.
- 이전, 2002, 애틀랜타 한인이민사, 푸른길 및 애틀랜타 한인회 한인이민사 편찬위원회.
- 이전, 2003, 고구려가 한민족사로 인식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문화역사지리학회), 15(3), 87-100.

해외지역연구의 방법과 과제

- 이전, 2004,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관한 재고찰, *문화역사지리(문화역사지리학회)*, 16(1), 197-214.
-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최병두, 2002,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31-149.
- 형기주,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연구의 방법과 그 응용, *지리학*, 35, 26-33.
- 황재기,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지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지리학*, 35, 15-20.
- Cole, J., 1996, *Geography of the World's Major Regions*, Routledge, London.
- Dickenson, R. E., 1969, *The Makers of Modern Geograph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 DeBlij, H. J. and Muller, P. O., 2001, *Geography: Realms, Regions and Concepts*(10th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 English, P. W. and Miller, J. A., 1989, *World Regional Geography: A Question of Place*(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James, P. E. and Martin, G. J., 1981, *All Possible World: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2nd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Johnston, R. J., 2001, *Geography and Geographers*, 5th ed.(reprinted), New York: Edward Arnold.
- Jordan-Bychkov, T. G., Mona Domosh, and Norman P. Grubb, 2003, *The Human Mosaic: A Thematic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New York: Harper & Row.
-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Lancaster, Pennsylvania: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Hartshorne, R., 1959,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phy*, Chicago: Rand McNally.
- Norris, R. E., 1990, *World Regional Geography*, West Publishing, New York.
- Schaeffer, F. 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 226-249.
- Stansfield, Jr., Charles A. and Zimolzak, C. E., 1990, *Global Perspectives: A World Regional Geography*, Merrill Publishing Company, Columbus.
- Wheeler, J. H. and Kostbade, J. T., 1990, *World Regional Geography*, Saunders College Publishing, Chicago.